

2018년 상반기 경상남도 고용동향

2018. 8

창원상공회의소

I. 조사개요

1. 조사목적

- 본 조사는 고용보험DB를 활용한 경남지역 사업장과 근로자의 규모별, 업종별 고용동향과 퇴직 후 이동경로 등을 파악해 지역의 고용 지원정책 수립에 참고자료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2. 조사방법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DB를 활용한 분석
 - 고용보험DB는 고용보험 전산망 운영을 통해 축적된 행정 데이터로써 고용정책 수립, 평가 및 노동시장 동향 분석에 신속하고 세분화된 분석에 활용하기 용이함.
 - 고용보험DB 법적근거
 -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규정에 의한 국가승인통계(고용보험통계: 승인번호 제327002호)
 - 피보험자의 포괄범위
 -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계약형태가 '상용', '계약직'인 근로자 단,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주15시간) 미만인 자, 국가·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자 등은 적용되지 않음
 - 고용보험DB 이용 시 유의사항
 - 분기 중 최신 월의 통계는 잠정치 통계이며, 익월 발표시 확정치로 대체됨
 - 고용보험DB는 공공고용서비스 영역에 대한 전수행정자료이며, 포괄하지 않은 부분(자영업자, 미가입자, 구직급여를 받지 않는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등)이 있으므로 이용 시 유의
 - 서비스업은 일용근로자 비중이 대체로 높아 전체 동향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음

3. 조사기간

2018년 8월 20일 ~ 8월 28일

4. 조사사항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규모별, 업종별)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자수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수(규모별, 업종별)
- 고용보험 상실자의 재취득 경로(지역별, 업종별)

II. 요약 및 시사점

○ 2018년 상반기 경남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이하 근로자 수)

→ 근로자 수 73만 7,661명, 전년 동기 대비 0.7% 감소

- ‘10인 미만 사업장’(+1.1%) 근로자 수를 제외한, 규모별 사업장 모두 감소
(10인 ~ 99인 -1.1%, 100 ~ 299인 -2.3%, 300인 이상 -1.5%)

→ 서비스업 근로자가 제조업 근로자 수 상회(상반기 기준 처음)

- 업종별로 제조업 근로자 33만 4,078명(-4.9%), 서비스업 근로자 35만 2,565명(+3.5%)
- ‘기계 및 장비’, ‘식료품’, ‘전자부품’, ‘의료, 정밀 광학기기’, ‘펄프, 종이’ 제조업을 제외한 나머지 제조업종 모두 근로자 수 감소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년 연속 감소(‘16상 -1.7%, ‘17상 -19.1%, ‘18상 -19.1%)

→ 서비스업 근로자 수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주도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4.5%), ‘보건업 및 사회복지’(+4.4%) 등
- ‘숙박 및 음식점’(+10.0%), ‘도매 및 소매’(+3.7%) 등도 근로자 수 지속적 증가

→ 연령별 근로자 수, 젊은 층으로 갈수록 감소 추세 뚜렷

- 노년층 근로자 수 지속적으로 증가(공공부문 일자리 증가가 주된 요인)

○ 2018년 상반기 경남 지역별 근로자 수

→ 창원 24만 6,887명, 김해 12만 5,580명, 양산 7만 5,817명, 거제 7만 1,258명 순

- 조선산업이 밀집한 거제시(-19.9%), 통영시(-5.7%), 고성군(-0.3%) 근로자 수 감소
- 제조업 집중지역은 주력산업에 따라 근로자 수 변화 차이
 - 창원시 : ‘기계장비 제조업’이 2년 연속 근로자 수 증가를 보여, 타 제조업종의 근로자 수 감소분 상쇄
 - 진주시 : ‘기계장비’와 ‘식료품’제조업 근로자 수 늘고, 서비스업은 ‘부동산업’의 근로자 수가 전년 대비 15.7% 증가
 - 김해·양산시 : 주력산업인 ‘기계장비’, ‘금속가공’, ‘자동차 부품’제조업의 근로자 수 일제히 감소했지만,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을 비롯한 공공부문 일자리 늘며 전체 근로자 수 증가
 - 거제시 : 3년 연속 근로자 수가 감소했으며, 특히 제조업 근로자 수가 전년 대비 23.3% 급감한데 이어, 조선업과 함께 성장해온 서비스업의 근로자 수 동반 하락 지속

○ 2018년 상반기 경남 취업자 및 재취업

→ 전체 취업자 수 감소 속, 경력취업과 신입취업 간 격차 8.5배 기록

- 고졸 또는 대졸 신입 취업자에 대한 수요 감소 추세
- 경기불확실성에 따라 인력양성 보다는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경력직 선호,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이들의 고용 조건(급여 등)의 차이가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요인
- 경남 퇴직자 재취업, 지역별로 경남도 내에 이어 부산, 서울, 경기, 울산 순
- 경남 제조업 퇴직자 재취업, 같은 제조업에 이어 ‘도매 및 소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순

Ⅲ. 경상남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동향

1. 경상남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

(1) 규모별 피보험자 수

- 2018년 상반기 경남지역 고용보험¹⁾에 가입한 상시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 이하 근로자) 수는 73만 7,661명임. 이는 전년 대비 5,677명(-0.8%) 감소한 수입.
- 규모별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는 20만 1,66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음. 반면,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9만 3,468명으로 1.1% 감소했고,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10만 9,557명으로 2.3%, ‘300인 이상 사업장’은 13만 2,976명으로 1.5% 줄었음.
특히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1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수는 3년 연속 감소했음.

경남 규모별 근로자 수

(단위 : 명)

	‘14 상	‘15 상	‘16 상	‘17 상	‘18 상
전체	716,040 (3.9%)	746,462 (4.2%)	750,145 (0.5%)	743,338 (-0.9%)	737,661 (-0.8%)
10인 미만	179,661 (4.1%)	185,693 (3.4%)	193,930 (4.4%)	199,374 (2.8%)	201,660 (1.1%)
10인 이상 100인 미만	282,891 (3.1%)	294,440 (4.1%)	296,544 (0.7%)	296,847 (0.1%)	293,468 (-1.1%)
100인 이상 300인 미만	123,680 (6.6%)	125,223 (1.2%)	121,418 (-3.0%)	112,142 (-7.6%)	109,557 (-2.3%)
300인 이상	129,808 (3.0%)	141,106 (8.7%)	138,253 (-2.0%)	134,975 (-2.4%)	132,976 (-1.5%)

<자료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 연(年)말 상시(상용+임시) 근로자 기준, 일용근로자 및 임의가입 자영업자 제외

1) 고용보험 적용제의 근로자(고용보험법 제8조, 10조 및 령 제2조, 제3조)
 -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단,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 및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는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에 가입할 수 있음.
 -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 외국인근로자(재외동포의 체류자격을 가진자 중 보험가입신청자, 영주의 체류자격을 가진자는 제외)

(2) 업종별 피보험자 수

- 2018년 상반기 근로자 수가 소폭 감소한 가운데, 제조업 근로자 수는 33만 4,07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 감소했고, 서비스업 근로자 수는 35만 2,565명으로 3.5% 증가했음. 건설업과 기타업의 근로자 수는 각각 1.0%, 0.4% 줄었음.

경상남도 업종별(대분류) 근로자 수 동향

(단위 : 명)

	'14 상	'15 상	'16 상	'17 상	'18 상
전체	716,040 (3.9%)	746,462 (4.2%)	750,145 (0.5%)	743,338 (-0.9%)	737,661 (-0.8%)
제조업	374,453 (2.9%)	378,653 (1.1%)	372,260 (-1.7%)	351,390 (-5.6%)	334,078 (-4.9%)
서비스업	293,886 (5.6%)	318,058 (8.2%)	327,153 (2.9%)	340,508 (4.1%)	352,565 (3.5%)
건설업	34,230 (-1.1%)	35,267 (3.0%)	36,279 (2.9%)	36,984 (1.9%)	36,620 (-1.0%)
기타	13,471 (9.0%)	14,484 (7.5%)	14,453 (-0.2%)	14,456 (0.0%)	14,398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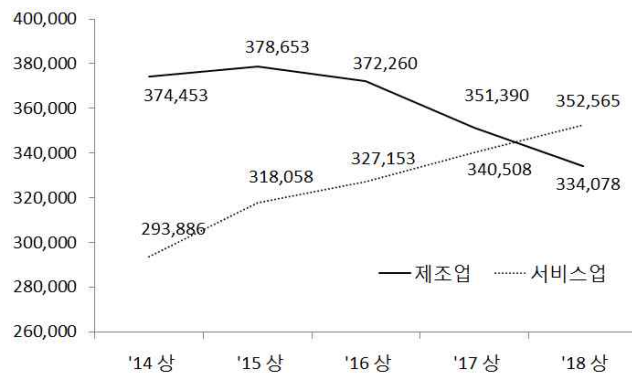
<자료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 연(年)말 상시(상용+임시) 근로자 기준, 일용근로자 및 임의가입 자영업자 제외

※ 서비스업은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타는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함.

- 경남 제조업 근로자 수의 지속적인 감소와 서비스업 근로자 수의 추세적 증가가 겹쳐 2018년 상반기에는 서비스업 근로자 수가 제조업 근로자 수를 상회하였음. 이는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해온 경남의 피보험자 수 통계 상(상반기 기준) 처음임.

경남 제조업, 서비스업 근로자 수 추이



<자료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 제조업 근로자 수 감소는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의 근로자 수 급감에 따른 것임.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의 근로자 수는 2016년 상반기 전년 대비 5.3% 감소한 데 이어 2017년과 2018년 상반기, 2년 연속 19.1% 감소했음. 2015년 이후 3년 사이 38.0% 감소한 것임.

경남 제조업 업종별 피보험자 수 동향

(단위 : 명)

	'14 상	'15 상	'16 상	'17 상	'18 상
제조업	374,453 (2.9%)	378,653 (1.1%)	372,260 (-1.7%)	351,390 (-5.6%)	334,078 (-4.9%)
기타 운송장비	102,326 (6.0%)	107,183 (4.7%)	101,545 (-5.3%)	82,124 (-19.1%)	66,428 (-19.1%)
기계 및 장비	65,361 (6.3%)	65,397 (0.1%)	64,307 (-1.7%)	63,923 (-0.6%)	64,701 (1.2%)
자동차 및 트레일러	34,556 (-5.0%)	36,023 (4.2%)	36,394 (1.0%)	36,824 (1.2%)	35,587 (-3.4%)
금속가공제품 (기계 및 가구 제외)	37,997 (6.4%)	38,005 (0.0%)	36,970 (-2.7%)	35,034 (-5.2%)	34,699 (-1.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25,187 (6.1%)	24,735 (-1.8%)	24,700 (-0.1%)	24,542 (-0.6%)	23,183 (-5.5%)
전기장비	21,778 (-2.2%)	21,788 (0.0%)	22,248 (2.1%)	22,261 (0.1%)	21,718 (-2.4%)
1차 금속	19,033 (-5.8%)	18,011 (-5.4%)	17,623 (-2.2%)	17,318 (-1.7%)	16,761 (-3.2%)
식료품	13,933 (4.4%)	14,170 (1.7%)	14,648 (3.4%)	14,842 (1.3%)	15,264 (2.8%)
전자부품	10,552 (-9.0%)	9,516 (-9.8%)	9,374 (-1.5%)	9,399 (0.3%)	9,605 (2.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의약품 제외)	8,792 (10.8%)	8,805 (0.1%)	9,129 (3.7%)	9,282 (1.7%)	9,204 (-0.8%)
비금속 광물제품	7,725 (-4.4%)	7,500 (-2.9%)	7,431 (-0.9%)	7,503 (1.0%)	7,472 (-0.4%)
의료, 정밀, 광학기기	5,681 (7.6%)	5,361 (-5.6%)	5,454 (1.7%)	5,507 (1.0%)	5,617 (2.0%)
섬유제품 (의복제외)	5,566 (5.5%)	5,816 (4.5%)	5,909 (1.6%)	5,420 (-8.3%)	5,328 (-1.7%)
펄프, 종이	4,103 (2.8%)	4,109 (0.1%)	3,972 (-3.3%)	3,930 (-1.1%)	4,059 (3.3%)
기타제품	11,863 (-1.5%)	12,234 (3.1%)	12,556 (2.6%)	13,481 (7.4%)	14,452 (7.2%)

<자료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 연(年)말 상시(상용+임시) 근로자 기준, 일용근로자 및 임의가입 자영업자 제외

※ 기타 제조업은 '목재 및 나무제품(가구제외)',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음료', '가구',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담배' 등을 포함함.

- 이 밖에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5.5%), ‘자동차 및 트레일러’(-3.4%), ‘1차 금속’(-3.2%), ‘전기장비’(-2.4%), ‘섬유제품(의복제외)’(-1.7%),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1.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0.8%), ‘비금속 광물제품’(-0.4%) 등의 제조업종은 전년 대비 근로자 수 감소를 보였음.
반대로 근로자 수가 증가한 제조업종은 ‘기타제품’(+7.2%), ‘펄프, 종이’(+3.3%), ‘식료품’(2.8%), ‘전자부품’(+2.2%), ‘의료·정밀·광학기기’(+2.0%), ‘기계 및 장비’(+1.2%) 등임.
- 경남 제조업의 근로자 수는 ‘기타 운송장비’가 6만 6,428명으로 가장 많고, ‘기타 기계 및 장비’ 6만 4,701명, ‘자동차 및 트레일러’ 3만 5,587명, ‘금속가공제품’ 3만 4,699명, ‘고무 및 플라스틱’ 2만 3,183명, ‘전기장비’ 2만 1,718명, ‘1차금속’ 1만 6,761명, ‘식료품’ 1만 5,264명, ‘전자부품’ 9,605명 순임.
- 서비스업 근로자 수 증가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4.5%)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4.4%) 등 공공부문 일자리와 ‘숙박 및 음식점’(+10.0%)과 ‘도매 및 소매’(+3.7%) 등 주도했음. 이 밖에 ‘부동산’(+7.7%), ‘정보통신’(+3.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3.4%), ‘교육’(+3.0%), ‘금융 및 보험’(+2.0%), ‘전문, 과학 및 기술’(+0.4),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0.4%) 등도 근로자 수 증가를 보였음.
반대로 ‘운수 및 창고’(-2.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2.4%) 서비스업의 근로자 수는 감소했음.
- 경상남도 서비스업의 근로자 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9만 2,851명으로 가장 많고, ‘도매 및 소매업’(4만 2,473명), ‘전문, 과학 및 기술’(3만 1,325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2만 6,387명), ‘운수 및 창고업’(2만 6,065명), ‘교육’(2만 4,933명), ‘부동산’(2만 4,863명), ‘숙박 및 음식점’(2만 2,917명) 순임.
- 조선업을 비롯한 지역 주력산업들의 실적 악화로 제조업의 고용여력은 감소하는 가운데, 제조업 퇴직 인력들을 서비스업이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서비스업의 고용보험 가입이 증가하는 것도 서비스업 근로자 수 증가를 견인하고 있음.

경남 서비스업의 고용보험 근로자 수 추이

(단위 : 명)

	'14 상	'15 상	'16 상	'17 상	'18 상
서비스업	293,887 (5.6%)	318,059 (8.2%)	327,153 (2.9%)	340,509 (4.1%)	352,566 (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79,176 (9.0%)	84,287 (6.5%)	84,803 (0.6%)	88,972 (4.9%)	92,851 (4.4%)
도매 및 소매	34,205 (5.2%)	36,120 (5.6%)	39,615 (9.7%)	40,957 (3.4%)	42,473 (3.7%)
전문, 과학 및 기술	26,201 (6.0%)	29,923 (14.2%)	30,910 (3.3%)	31,215 (1.0%)	31,325 (0.4%)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24,535 (17.5%)	25,149 (2.5%)	25,152 (0.0%)	26,276 (4.5%)	26,387 (0.4%)
운수 및 창고	25,907 (1.3%)	26,570 (2.6%)	26,947 (1.4%)	26,825 (-0.5%)	26,065 (-2.8%)
교육	23,085 (-6.3%)	23,877 (3.4%)	24,101 (0.9%)	24,207 (0.4%)	24,933 (3.0%)
부동산	12,017 (-0.5%)	19,639 (63.4%)	20,364 (3.7%)	23,093 (13.4%)	24,863 (7.7%)
숙박 및 음식점	12,765 (13.9%)	14,972 (17.3%)	18,344 (22.5%)	19,930 (8.6%)	21,917 (10.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7,463 (1.1%)	16,908 (-3.2%)	15,955 (-5.6%)	16,532 (3.6%)	18,921 (14.5%)
협회, 수리 및 기타	14,346 (7.0%)	15,514 (8.1%)	15,297 (-1.4%)	15,949 (4.3%)	15,562 (-2.4%)
금융 및 보험	13,750 (0.5%)	14,801 (7.6%)	14,991 (1.3%)	14,928 (-0.4%)	15,223 (2.0%)
예술, 스포츠	5,910 (21.8%)	5,730 (-3.0%)	6,092 (6.3%)	6,702 (10.0%)	6,931 (3.4%)
정보통신	4,526 (-8.0%)	4,568 (0.9%)	4,582 (0.3%)	4,922 (7.4%)	5,114 (3.9%)

<자료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 연(年)말 상시(상용+임시) 근로자 기준, 일용근로자 및 임의가입 자영업자 제외

(3) 연령별 피보험자 수

○ 경남의 연령별 근로자 수를 보면, 45세 미만 근로자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고 45세 이상 근로자 수는 증가했음.

특히, '18세 이상 20세 미만'(-11.0%), '30세 이상 35세 미만'(-9.5%), '20세 이상 25세 미만'(-5.7%) 근로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음.

반대로 큰 증가를 보인 연령대는 '60세 이상 65세 미만'+11.2%), '65세 이상 70세 미만'+9.0%), '55세 이상 60세 미만'+6.7%) 등임.

○ 경남 근로자 수는 '30세 이상 35세 미만'과 '40세 이상 45세 미만'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왔으나, 생산인구 고령화 진행과 경력직 채용 선호 등이 맞물려 45세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추세에 있음.

○ 경남 연령별 근로자 수는 젊은 층으로 갈수록 감소하고, 노년층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젊은 층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신규직과 경력직의 급여차가 줄어들어 따라 사업장의 신입인력 채용에 소극적인 경향이 짙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됨. 더불어 노년층의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것은 정부 주도의 공공부문 일자리가 확대되고 있는 것과 줄어들어 가계소득을 상쇄하기 위한 노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늘어난 데 따른 것임.

경남 연령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추이

(단위 : 명)

	'14 상	'15 상	'16 상	'17 상	'18 상
합 계	716,040 (3.9%)	746,462 (4.2%)	750,145 (0.5%)	743,338 (-0.9%)	737,661 (-0.8%)
18~20세 미만	4,171 (16.5%)	4,495 (7.8%)	4,263 (-5.2%)	3,748 (-12.1%)	3,335 (-11.0%)
20~24세 이하	33,787 (6.2%)	34,668 (2.6%)	34,696 (0.1%)	32,431 (-6.5%)	30,571 (-5.7%)
25~29세 이하	76,479 (-2.9%)	75,794 (-0.9%)	71,449 (-5.7%)	67,640 (-5.3%)	65,843 (-2.7%)
30~34세 이하	107,867 (0.4%)	104,517 (-3.1%)	95,919 (-8.2%)	85,552 (-10.8%)	77,439 (-9.5%)
35~39세 이하	95,078 (0.0%)	99,838 (5.0%)	102,997 (3.2%)	103,848 (0.8%)	102,362 (-1.4%)
40~44세 이하	108,196 (1.2%)	109,539 (1.2%)	107,181 (-2.2%)	102,552 (-4.3%)	97,820 (-4.6%)
45~49세 이하	96,977 (10.2%)	103,109 (6.3%)	107,610 (4.4%)	108,893 (1.2%)	109,810 (0.8%)
50~54세 이하	84,217 (1.7%)	87,808 (4.3%)	88,248 (0.5%)	90,017 (2.0%)	90,092 (0.1%)
55~59세 이하	58,958 (15.0%)	65,702 (11.4%)	73,878 (12.4%)	77,478 (4.9%)	82,648 (6.7%)
60~64세 이하	27,934 (10.7%)	32,336 (15.8%)	37,211 (15.1%)	41,371 (11.2%)	46,011 (11.2%)
65~69세 이하	13,398 (18.3%)	15,558 (16.1%)	16,728 (7.5%)	18,803 (12.4%)	20,486 (9.0%)
70세 이상	8,907 (33.6%)	12,964 (45.5%)	9,703 (-25.2%)	10,463 (7.8%)	10,575 (1.1%)

<자료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 연(年)말 상시(상용+임시) 근로자 기준, 일용근로자 및 임의가입 자영업자 제외

※ 18세 미만, 분류불능 제외

(4) 지역별 피보험자 수

- 2018년 상반기 지역별 근로자 수는 창원시가 24만 6,887명으로 가장 많고, 김해시 12만 5,580명, 양산시 7만 5,817명, 거제시 7만 1,258명, 진주시 6만 7,491명 순임.

- 경남도 내 대부분의 시·군의 근로자 수가 증가하였지만, 조선산업이 밀집한 거제시 (-19.9%), 통영시(-5.7%), 고성군(-0.3%)의 근로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음.
반면 거창군(+5.5%), 사천시(+5.2%), 진주시(+4.5%) 등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근로자 수 증가를 보였음.

- 특히 서비스업의 근로자 수 증가가 눈에 띈. 밀양시, 산청군, 양산시, 남해군, 합천군 등은 서비스업 근로자 수가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했으며, 이중 밀양시와 산청군은 10% 이상 증가했음.
이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업의 근로자 수가 1년 사이 크게 늘었고, ‘도매 및 소매’업 근로자 수도 함께 증가한 데 따른 것임. 같은 기간 노인층 근로자 수가 함께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공공부문 노인 일자리 증가가 경남 시·군의 서비스업 근로자 수를 견인하고 있음.

- 제조업이 집중되어 있는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거제시, 진주시, 사천시, 함안군은 주력산업의 경기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음.
경남도 내 제조업 중심도시인 창원시는 ‘기계장비 제조업’이 2년 연속 근로자 수 증가를 보여, 타 제조업종의 근로자 수 감소를 상쇄했음.
진주시의 근로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했음. 제조업은 ‘기계장비 제조업’과 ‘식품제조업’의 근로자 수가 늘고, 서비스업은 ‘부동산업’의 근로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5.7%로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임.
김해시와 양산시는 주력산업인 기계장비, 금속가공, 자동차 부품의 근로자 수가 모두 감소했지만,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업’ 등 서비스업 근로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해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했음.
국내 조선산업의 중심도시인 거제시는 3년 연속(상반기 기준) 근로자 수 감소를 보였고, 특히 제조업 근로자 수는 2018년 상반기 4만 4,87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3% 급감했음.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근로자 수를 기록했던 2015과 비교해 41.0% 급감한 수임. 더불어 조선업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서비스업 근로자 수가 함께 감소해 거제시 전체 근로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6.9% 줄어, 3년 연속 큰 폭의 감소를 보였음.

경남 지역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추이

(단위 : 명)

시·군	업종	'14 상	'15 상	'16 상	'17 상	'18 상	
경 상 남 도		716,040	746,462	750,145	743,338	737,661	(-0.8%)
창원		241,025	242,816	244,933	245,243	246,887	(0.7%)
	제조업	118,372	116,721	113,914	111,422	110,919	(-0.5%)
	서비스업	109,485	112,859	117,551	120,136	122,451	(1.9%)
	기타	13,168	13,236	13,468	13,685	13,517	(-1.2%)
김해		119,252	121,010	123,185	124,467	125,580	(0.9%)
	제조업	72,213	71,505	71,180	69,894	69,024	(-1.2%)
	서비스업	40,725	43,004	45,484	47,638	49,705	(4.3%)
	기타	6,314	6,501	6,521	6,935	6,851	(-1.2%)
양산		69,864	73,755	73,703	75,482	75,817	(0.4%)
	제조업	42,739	42,810	43,405	43,267	41,558	(-3.9%)
	서비스업	24,637	28,200	27,303	29,092	31,059	(6.8%)
	기타	2,488	2,745	2,995	3,123	3,200	(2.5%)
거제		98,016	103,810	100,552	85,726	71,258	(-16.9%)
	제조업	72,675	76,042	72,070	58,470	44,872	(-23.3%)
	서비스업	23,197	25,295	26,029	25,051	24,546	(-2.0%)
	기타	2,144	2,473	2,453	2,205	1,840	(-16.6%)
진주		48,380	59,359	59,562	64,590	67,491	(4.5%)
	제조업	9,819	10,069	10,313	10,225	10,236	(0.1%)
	서비스업	32,902	43,278	43,013	48,183	51,144	(6.1%)
	기타	5,659	6,012	6,236	6,182	6,111	(-1.1%)
사천		25,153	26,199	27,007	26,354	27,737	(5.2%)
	제조업	14,732	15,459	15,533	14,394	15,159	(5.3%)
	서비스업	8,437	8,801	9,436	9,864	10,277	(4.2%)
	기타	1,984	1,939	2,038	2,096	2,301	(9.8%)
함안		23,204	23,698	24,285	24,674	24,856	(0.7%)
	제조업	16,439	16,568	16,690	16,953	17,001	(0.3%)
	서비스업	5,131	5,486	5,929	6,058	6,205	(2.4%)
	기타	1,634	1,644	1,666	1,663	1,650	(-0.8%)
밀양		16,051	16,572	16,774	17,314	17,598	(1.6%)
	제조업	6,383	6,768	6,648	6,750	6,699	(-0.8%)
	서비스업	7,664	6,849	7,362	7,820	8,628	(10.3%)
	기타	2,004	2,955	2,764	2,744	2,271	(-17.2%)
통영		16,914	17,815	18,436	17,010	16,038	(-5.7%)
	제조업	5,016	5,672	5,606	3,725	2,349	(-36.9%)
	서비스업	10,186	10,351	10,947	11,279	11,682	(3.6%)
	기타	1,712	1,792	1,883	2,006	2,007	(0.0%)

시·군	업종	'14 상	'15 상	'16 상	'17 상	'18 상	
창녕		10,202	10,900	10,946	11,197	11,424	(2.0%)
	제조업	4,802	5,100	5,000	5,081	5,169	(1.7%)
	서비스업	4,413	4,774	4,937	5,130	5,213	(1.6%)
	기타	987	1,026	1,009	986	1,042	(5.7%)
고성		10,790	10,955	10,571	9,864	9,833	(-0.3%)
	제조업	5,011	5,126	4,496	3,621	3,265	(-9.8%)
	서비스업	4,144	4,231	4,401	4,534	4,734	(4.4%)
	기타	1,635	1,598	1,674	1,709	1,834	(7.3%)
거창		7,316	7,964	8,345	8,632	9,106	(5.5%)
	제조업	1,286	1,444	1,621	1,739	1,905	(9.5%)
	서비스업	4,666	5,201	5,277	5,509	5,728	(4.0%)
	기타	1,364	1,319	1,447	1,384	1,473	(6.4%)
하동		5,688	5,833	6,114	6,479	6,550	(1.1%)
	제조업	597	613	664	745	704	(-5.5%)
	서비스업	3,371	3,450	3,629	3,895	4,010	(3.0%)
	기타	1,720	1,770	1,821	1,839	1,836	(-0.2%)
산청		4,620	5,159	5,479	5,609	6,109	(8.9%)
	제조업	863	1,014	1,182	1,202	1,304	(8.5%)
	서비스업	2,627	3,065	3,177	3,230	3,573	(10.6%)
	기타	1,130	1,080	1,120	1,177	1,232	(4.7%)
합천		5,289	5,758	5,595	5,723	5,982	(4.5%)
	제조업	747	772	887	865	864	(-0.1%)
	서비스업	3,197	3,814	3,530	3,584	3,812	(6.4%)
	기타	1,345	1,172	1,178	1,274	1,306	(2.5%)
함양		4,995	5,550	5,343	5,396	5,488	(1.7%)
	제조업	973	968	1,121	1,106	1,129	(2.1%)
	서비스업	3,191	3,689	3,327	3,409	3,447	(1.1%)
	기타	831	893	895	881	912	(3.5%)
남해		4,211	4,341	4,726	4,774	5,046	(5.7%)
	제조업	272	286	322	361	342	(-5.3%)
	서비스업	3,080	3,190	3,524	3,547	3,791	(6.9%)
	기타	859	865	880	866	913	(5.4%)
의령		5,070	4,968	4,589	4,804	4,861	(1.2%)
	제조업	1,514	1,716	1,608	1,570	1,579	(0.6%)
	서비스업	2,833	2,521	2,297	2,549	2,560	(0.4%)
	기타	723	731	684	685	722	(5.4%)

<자료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 연(年)말 상시(상용+임시) 근로자 기준, 일용근로자 및 임의가입 자영업자 제외

※ 건설업은 기타에 포함.

2. 경상남도 고용보험 자격 취득·상실 현황

- 2018년 상반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자(취업자) 수는 20만 8,65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했고, 상실자(퇴직자) 수는 20만 3,963명으로 3.8% 감소해 2017년 상반기에 이어 2년 연속 취득자 수가 상실자 수를 하회했음.

고용보험 상실자(퇴직자) 수

	'14 상	'15 상	'16 상	'17 상	'18 상
피보험 자격 취득 (취업자)	217,216 (8.0%)	222,065 (2.2%)	225,807 (1.7%)	212,111 (-6.1%)	208,650 (-1.6%)
신규취득 (신입직 취업)	30,282 (7.3%)	29,785 (-1.6%)	26,857 (-9.8%)	22,742 (-15.3%)	22,051 (-3.0%)
경력취득 (경력직 취업)	186,934 (8.2%)	192,280 (2.9%)	198,950 (3.5%)	189,369 (-4.8%)	186,599 (-1.5%)
피보험 자격 상실 (퇴직자)	199,689 (6.5%)	205,841 (3.1%)	226,079 (9.8%)	211,987 (-6.2%)	203,963 (-3.8%)

(단위 : 명)

<자료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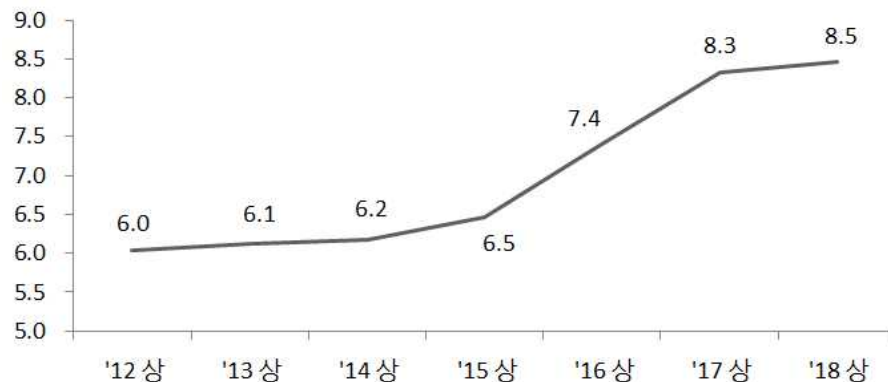
- 전체 취업자 수가 1.6% 감소한 가운데, 신입직 취업은 2만 2,05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했고, 경력직(이직) 취업은 18만 6,599명으로 1.5% 감소했음. 취업자 격별로 경력직 취업자와 신입직 취업자 수의 격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음.

신규 취업자 대비 경력 취득자 수의 배수는 2012년 상반기 6.0배에서 2018년 상반기에는 8.5배를 기록했음.

고졸 또는 대졸 신입 취업자에 대한 수요가 예년에 비해 줄어든 것은 경기불확실성에 따라 인력양성 보다는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경력직 선호 경향이 뚜렷해진 것과 더불어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이들의 고용 조건(급여 등)의 차이가 줄어든 데 따른 것임.

고용보험 신입 취업자 대비 경력 취업자 수의 배수 추이

(단위 : 배)



<자료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자격 취득(신규, 경력)

(단위 : 명)

		'14 상	'15 상	'16 상	'17 상	'18 상	
신규 취득		30,282 (7.3%)	29,785 (-1.6%)	26,857 (-9.8%)	22,742 (-15.3%)	22,051 (-3.0%)	
	18~20세 미만	3,400 (16.1%)	3,493 (2.7%)	3,217 (-7.9%)	2,624 (-18.4%)	2,148 (-18.1%)	
	20~24세 이하	9,829 (3.0%)	9,312 (-5.3%)	9,459 (1.6%)	7,860 (-16.9%)	7,515 (-4.4%)	
	25~29세 이하	4,092 (-2.2%)	3,880 (-5.2%)	3,537 (-8.8%)	3,067 (-13.3%)	2,992 (-2.4%)	
	30~34세 이하	1,306 (-1.4%)	1,180 (-9.6%)	1,043 (-11.6%)	935 (-10.4%)	886 (-5.2%)	
	35~39세 이하	921 (-10.4%)	806 (-12.5%)	758 (-6.0%)	664 (-12.4%)	691 (4.1%)	
	40~44세 이하	1,689 (-7.8%)	1,300 (-23.0%)	1,148 (-11.7%)	774 (-32.6%)	727 (-6.1%)	
	45~49세 이하	1,870 (4.4%)	1,686 (-9.8%)	1,647 (-2.3%)	1,316 (-20.1%)	1,282 (-2.6%)	
	50~54세 이하	1,802 (-5.6%)	1,705 (-5.4%)	1,722 (1.0%)	1,364 (-20.8%)	1,342 (-1.6%)	
	55~59세 이하	1,608 (13.5%)	1,556 (-3.2%)	1,687 (8.4%)	1,496 (-11.3%)	1,638 (9.5%)	
	60~64세 이하	941 (12.7%)	1,020 (98.4%)	1,092 (7.1%)	1,147 (5.0%)	1,406 (22.6%)	
	합계		186,934 (8.2%)	192,280 (2.9%)	198,950 (3.5%)	189,369 (-4.8%)	186,599 (-1.5%)
	경력 취득		1,823 (16.8%)	2,016 (10.6%)	2,106 (4.5%)	1,688 (-19.8%)	1,223 (-27.5%)
18~20세 미만		15,141 (17.6%)	15,764 (4.1%)	16,316 (3.5%)	14,601 (-10.5%)	13,642 (-6.6%)	
20~24세 이하		23,838 (0.9%)	23,382 (-1.9%)	23,008 (-1.6%)	21,154 (-8.1%)	21,074 (-0.4%)	
25~29세 이하		27,562 (3.6%)	26,021 (-5.6%)	24,555 (-5.6%)	21,244 (-13.5%)	18,915 (-11.0%)	
30~34세 이하		24,225 (2.8%)	24,251 (0.1%)	25,924 (6.9%)	25,024 (-3.5%)	23,924 (-4.4%)	
35~39세 이하		25,683 (5.1%)	25,769 (0.3%)	26,859 (4.2%)	24,699 (-8.0%)	23,076 (-6.6%)	
40~44세 이하		20,970 (14.1%)	21,748 (3.7%)	23,883 (9.8%)	23,229 (-2.7%)	23,617 (1.7%)	
45~49세 이하		17,428 (6.6%)	17,648 (1.3%)	18,949 (7.4%)	18,209 (-3.9%)	18,635 (2.3%)	
50~54세 이하		13,730 (15.6%)	14,788 (7.7%)	16,704 (13.0%)	17,103 (2.4%)	18,230 (6.6%)	
55~59세 이하		9,132 (11.6%)	10,101 (10.6%)	11,218 (11.1%)	12,400 (10.5%)	14,469 (16.7%)	
60~64세 이하							
합계		186,934 (8.2%)	192,280 (2.9%)	198,950 (3.5%)	189,369 (-4.8%)	186,599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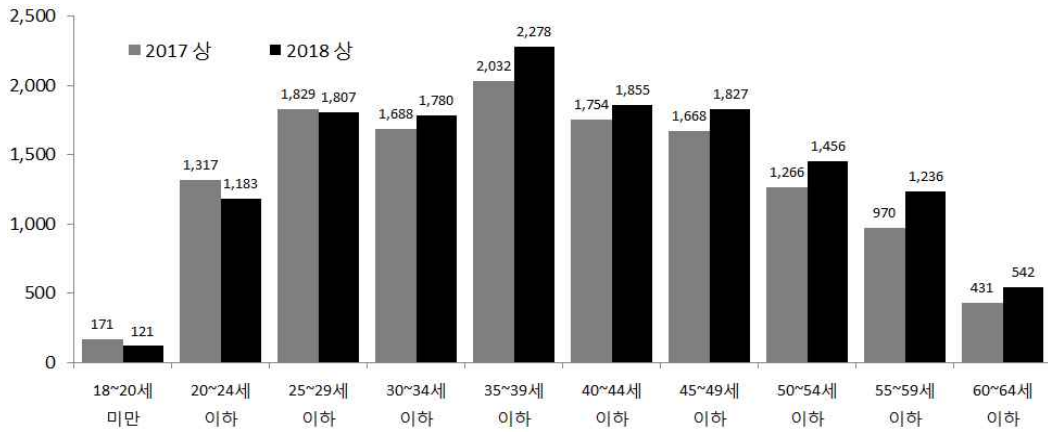
※ 행정통계를 확정된 이후 취득·상실에 대한 수정신고 등이 있을 수 있어, '전분기 피보험자 + 당분기 취득자 - 당분기 상실자'가 당월 피보험자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18세 이하, 65세 이상은 제외

<자료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 연령별 취업자 수를 살펴보면 신규취업과 경력취업 모두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신입취업자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특히 제조업 연령별 취업자를 보면, 30세 미만 취업자가 전년 동기와 비교해 일제히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음.

2018년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경남 제조업 연령별 취업자 수 비교



<자료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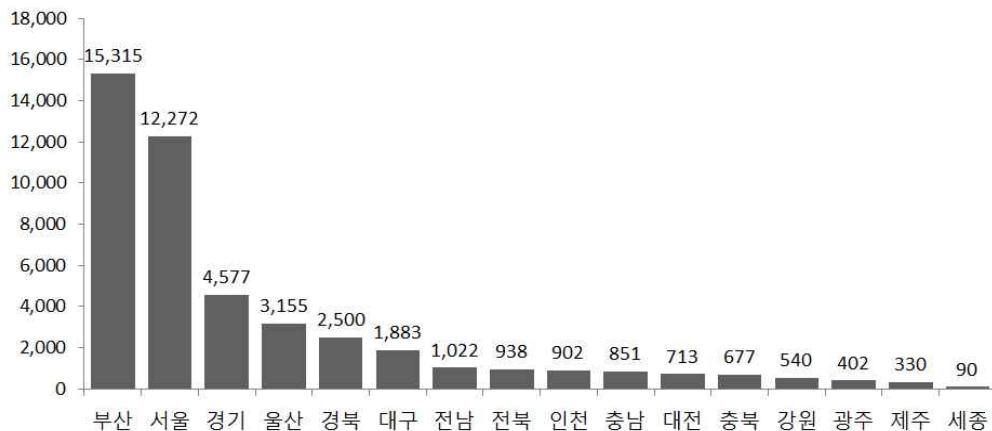
3. 경상남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경력이동 현황

- 2018년 상반기(누적기준) 경남에서 이직한 근로자 수는 18만 6,030명임. 이 중 경남에서 경남 내로 이직한 근로자 수는 13만 9,862명이며, 나머지 4만 6,168명은 타 지역으로 이동했음.

이 중 부산시로 1만 5,315명이 이동해 가장 많았고, 서울시 1만 2,272명, 경기도 4,577명, 울산시 3,155명, 경상북도 2,500명, 대구시 1,883명 순으로 대부분 인근 광역단체와 수도권으로부터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음.

2018년 상반기 경남 피보험자 타 지역 이동 현황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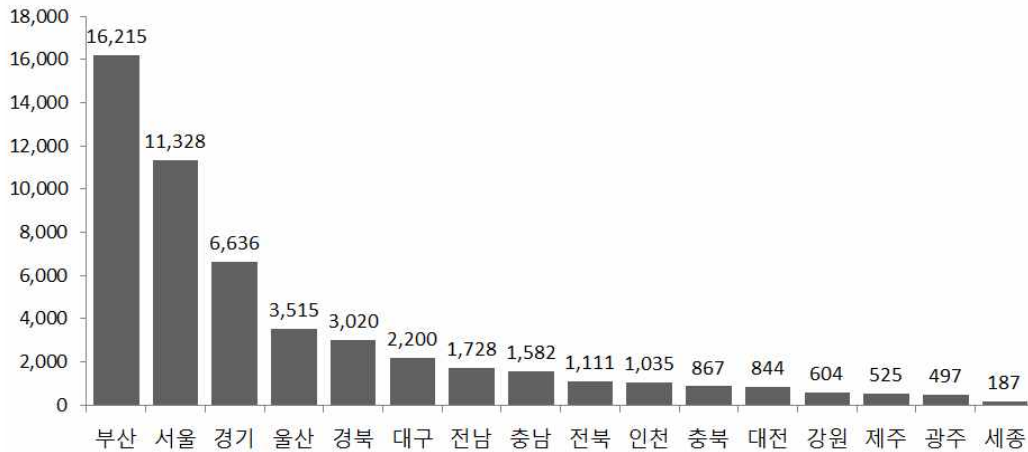
<자료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 경남 내 이동, 분류불능 제외

- 2018년 상반기(누적기준) 타 지역에서 경남으로 이직한 근로자 수는 19만 1,756명임. 이 중 부산시로부터 1만 6,215명이 유입되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서울시 1만 1,328명, 경기도 6,636명, 울산시 3,515명, 경상북도 3,020명, 대구시 2,200명이 타 지역으로부터 이동해 왔음.

2018년 상반기 타 지역 피보험자 경남 이동 현황

(단위 : 명)



<자료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 경남 내 이동, 분류불능 제외

- ‘제조업’에서 이직한 근로자 수는 총 7만 9,136명으로 이들 중 같은 ‘제조업’으로 이직한 근로자 6만 1,858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도매 및 소매업’과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으로 각각 3,728명, 3,642명이 이동했음.
반대로 제조업으로 이직해온 타 업종 근로자 또한 ‘도매 및 소매업’과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서 각각 3,589명, 2,587명 이동해 가장 많았음.

2018년 상반기 전국 지역 간 경력이동 근로자 현황

(단위 : 명)

전 후	경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합계
경남	139,862	11,328	16,215	2,200	1,035	497	844	3,515	187	6,636	604	867	1,582	1,111	1,728	3,020	525	191,756
서울	12,272	756,101	17,624	9,960	29,742	6,713	12,610	4,852	2,858	175,258	11,287	10,472	13,662	7,262	6,164	9,684	5,889	1,092,410
부산	15,315	15,014	134,762	1,519	1,022	382	907	3,008	192	5,599	591	556	880	499	967	2,163	717	184,093
대구	1,883	9,312	1,278	86,639	572	288	717	669	115	3,697	408	467	553	293	280	11,766	203	119,140
인천	902	24,858	897	445	93,487	500	711	334	220	23,855	906	1,008	1,848	723	695	747	518	152,654
광주	402	5,275	293	219	509	51,223	672	145	149	2,988	289	314	577	1,333	8,013	272	246	72,919
대전	713	10,907	809	649	723	706	48,982	301	2,250	5,959	398	2,621	4,423	1,046	483	705	231	81,906
울산	3,155	4,401	3,297	884	396	159	311	48,201	121	2,606	284	388	633	305	495	2,817	181	68,634
세종	90	1,790	148	105	155	140	1,338	55	5,928	1,361	102	999	1,095	159	117	110	28	13,720
경기	4,577	141,643	4,595	3,161	24,132	3,003	4,443	1,773	1,416	466,346	6,501	7,941	12,953	3,835	3,609	4,912	1,905	696,745
강원	540	9,938	447	342	848	179	528	337	140	6,472	62,292	1,167	748	350	299	839	282	85,748
충북	677	10,085	461	393	998	270	2,337	265	1,060	8,023	1,120	64,853	2,481	595	404	959	204	95,185
충남	851	11,513	713	494	1,941	606	4,121	442	1,781	13,124	766	2,626	78,786	1,793	880	1,171	254	121,862
전북	938	6,096	438	297	732	1,211	1,083	423	226	4,226	385	684	1,984	72,161	1,581	496	216	93,177
전남	1,022	4,961	758	243	596	7,771	492	358	134	3,598	322	415	896	1,349	64,692	597	277	88,481
경북	2,500	8,783	1,995	12,525	867	326	814	2,464	176	5,869	936	1,267	1,456	525	804	99,057	303	140,667
제주	330	4,396	548	219	460	170	157	95	87	1,551	204	132	199	141	261	186	28,496	37,632
합계	186,030	1,036,407	185,280	120,294	158,217	74,160	81,068	67,239	17,040	737,174	87,397	96,778	124,757	93,481	91,474	139,505	40,477	

<자료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 분류불능 제외

2018년 상반기 경남 내 경력이동 산업별 근로자 현황

(단위 : 명)

전 후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합계	
A	1,884	1	186	1	22	53	60	14	26	2	8	15	37	39	205	4	79	11	17			2,664	
B	4	57	49		9	31	14	5	2			1	4	3	2		4		1			186	
C	272	54	61,858	41	380	1,400	3,589	1,087	1,858	277	176	688	1,348	2,587	1,348	458	2,063	323	743		1	80,551	
D	1		54	90		39	14	6	2	1	6	35	50	9	9	7	5	1	3			332	
E	12	4	214	2	412	63	98	32	14	1	4	31	18	51	96	4	41	8	34			1,139	
F	55	23	1,407	39	58	7,890	503	153	154	46	12	304	436	281	270	58	217	57	86	1		12,050	
G	94	15	3,728	31	130	563	5,353	354	880	104	97	237	320	539	377	264	1,050	153	300			14,589	
H	56	6	1,140	4	47	147	307	2,750	122	14	18	101	68	458	177	72	184	29	94			5,794	
I	37	1	1,563	11	25	130	682	108	5,232	63	46	108	201	424	282	196	835	184	143	1		10,272	
J	5		566	11	8	125	190	43	115	367	22	42	98	68	98	75	134	34	36			2,037	
K	13	1	235	3	8	44	161	21	68	9	410	70	45	55	78	31	134	12	37			1,435	
L	10	1	311	2	12	115	102	55	96	12	14	2,641	63	705	185	35	119	20	48			4,546	
M	36	2	1,586	12	31	390	312	62	203	58	37	184	2,392	326	190	132	228	61	90		1	6,333	
N	65	5	3,642	28	114	514	896	368	812	105	61	1,591	603	5,026	1,098	532	1,044	261	229			16,994	
O	82	2	511	44	57	88	188	56	158	38	34	225	107	253	12,773	229	754	120	201			15,920	
P	13	2	378	2	10	54	168	65	167	39	24	70	138	276	335	5,767	643	225	103			8,479	
Q	42	1	1,016	4	30	144	613	106	550	47	17	128	207	423	738	633	22,368	98	673			27,838	
R	12	3	234	2	8	44	112	24	173	18	11	53	42	97	173	84	163	840	51			2,144	
S	20	1	458	2	16	67	276	64	218	9	10	63	68	124	206	73	610	82	1,808		1	4,176	
T							1										2		1	5		9	
U								1	1													7	9
합계	2,713	179	79,136	329	1,377	11,901	13,639	5,374	10,851	1,210	1,007	6,587	6,245	11,744	18,641	8,654	30,677	2,519	4,698	7	10		

<자료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 ※ A = 농업·임업 및 어업, B = 광업, C = 제조업, D =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E =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 F = 건설업,
- G = 도매 및 소매업, H = 운수 및 창고업, I = 숙박 및 음식점업, J = 정보통신업, K = 금융 및 보험업, L = 부동산업, M =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N =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O =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P = 교육 서비스업, Q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R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S =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T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 U = 국제 및 외국기관, V = 분류불능